

GREENPEACE

### 그린피스의 미션

독립적인 캠페인 단체 그린피스는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를 널리 알리고, 깨끗하고 푸른 미래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대항합니다. 그린피스는 지구의 모든 다양한 생명이 번영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를 추구합니다.

- 생물 다양성 보호
- 해양, 토양, 대기, 수질의 오염과 남용 방지
- 모든 핵 위협의 종결
- 세계 평화, 군비 축소, 비폭력

### 그린피스의 핵심가치

- 긍정적인 행동** 그린피스는 창조적이고 평화적인 대응방식을 취합니다.
- 신뢰** 그린피스는 환경문제를 독립적으로 조사, 연구 및 행동함으로써 신뢰성을 유지합니다.
- 글로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국경 없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범세계적인 지식과 자원을 활용합니다.
- 독립성** 그린피스는 정부, 기업 혹은 정당으로부터 그 어떤 후원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후원만을 받아 정치적·상업적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 [ 함께 읽는 임팩트 리포트 ]

주변의 가족, 친구들과 임팩트 리포트를 함께 읽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환경문제를 알리고, 해결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동참할 수록, 지구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린피스가 어떤 기업이나 정부로부터도 언제나 독립적으로 지구 환경 파괴에 대항해 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린피스를 후원하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REENPEACE

재단법인 그린피스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우 04322)

☎ 02-3144-1997 ✉ supporter.kr@greenpeace.org 🏠 www.greenpeace.org/korea  
📘 www.facebook.com/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 @greenpeacekorea



이 제작물의 표지는 FSC인증 용지, 내지는 100% 재생용지로 제작되었으며, 공기를 잉크로 인쇄되었습니다.



AUTUMN 2016

IMPACT REPORT



## 자연과 사람들의 이야기

비록 대도시의 빌딩 숲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자연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매일 출근 전에 초미세먼지에 신경 쓰고,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엄청난 폭우나 폭설을 맞닥뜨립니다.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규 원전 소식에도 걱정이 쏠립니다. 이처럼 자연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주고 또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임팩트 리포트에서는 '환경과 사람'을 주제로 특집 기사를 마련했습니다. 초대형 댐 건설로 인해 대대로 살아오던 삶의

터전이 수몰될 위기에 처한 아마존의 문두루쿠족 원주민들, 건강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용감하게 행동에 나선 활동가, 원전 사고 이후 체르노빌 사람들 까지. 다양한 삶의 모습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지구를 위한 변화를 만들고자 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밖에도 그린피스의 최신 캠페인 소식과 인터뷰를 통해, 후원자님과 그린피스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들을 만나보세요!

### 목차

- 03 후원금 사용 내역      **커버스토리 '환경과 사람'**
- 04 그린피스 뉴스      06 1 아마존의 심장, 그곳에 사는 사람들
- 10 2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미래
- 12 3 평범한 아저씨가 용기를 낸 이유
- 14 Photo Story
- 16 해양 보호 캠페인
- 17 기후에너지 캠페인
- 22 그린피스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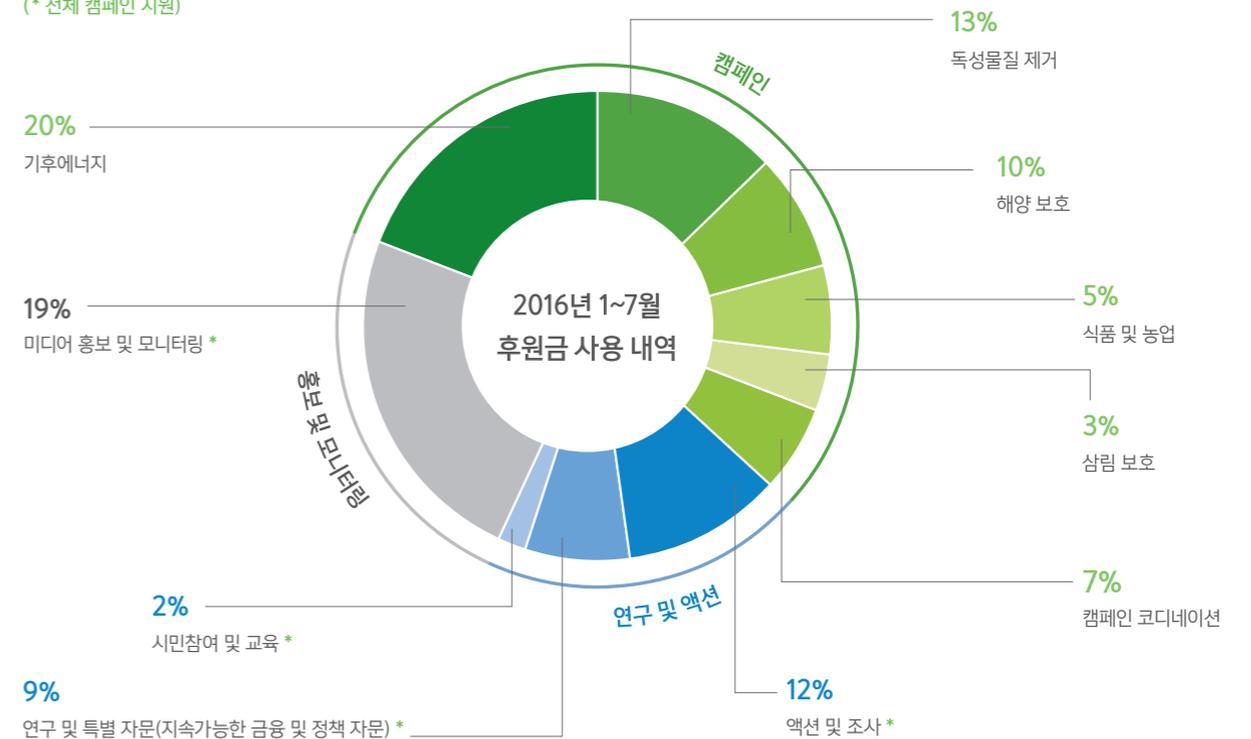
**임팩트 리포트 2016 가을호(통권 7호)**  
 발행일 2016년 9월 19일  
 발행처 재단법인 그린피스  
 전 화 02)3144-1997  
 주 소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 257 청룡빌딩 6층  
 디자인 및 인쇄 (주)인디엔피 www.indnp.com

## 2015년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 후원금 사용 내역

그린피스 서울 사무소는 그린피스 동아시아 지부에 속해 있습니다.

투명성과 책임감은 그린피스의 자부심입니다. 그린피스는 시민들의 참여로 움직이는 단체이며, 때문에 후원자님들과 서포터들에게 우리의 활동에 대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국제 비정부단체 헌장에 서명한 단체로, 윤리적인 모금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후원자님의 소중한 후원금이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체 캠페인 지원)



\* 정확한 후원금 사용내역 총액은 회계감사를 거쳐 연차보고서에 게재됩니다. 2015년 사용 내역은 그린피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cover story

아마존 타파조스강가에 살고 있는 문두루쿠족 소녀. 머리 위의 원숭이는 소녀가 가는 곳이라면 모자처럼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 Jannes Stoppel / Greenpeace



임팩트 리포트를 보시고 궁금했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 좋았던 점과 더 소개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더 많은 후원자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린피스와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supporter.kr@greenpeace.org로 감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더 나은 임팩트 리포트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린피스  
한국  
캠페인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평화적 직접행동

지난 3월,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부산의 밤거리에서 “원전 반대” 메시지를 담은 이색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활동가들은 먼지와 오염물질로 더러워진 바닥이나 벽면을 닦아 그림이나 메시지를 남기는 ‘리버스 그라피티’를 이용해, “핵바람 그만 불라 전해라”라는 문구를 부산 곳곳에 남겼습니다. 이는 총선을 앞두고 안전한 부산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에 관한 첫 심의가 있었던 지난 5월 26일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치한 광화문 KT빌딩 앞에서 신고리 5, 6호기 건설 계획 취소 촉구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 Taekyong Jung / Greenpeace

원전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전하다

지난 4월 9일과 10일, 그린피스의 환경감시선 레인보우 워리어호가 후쿠시마 탐사를 마친 후, 현지의 참사를 공유하고 국내 원전 확대 정책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다시 한 번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오픈 보트’ 행사 및 탈핵 사진전, 페이스 페인팅 등의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캠페이너 및 선원들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부산에서 ‘핵노잼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는 한편 재생가능에너지 중심의 새롭고 흥미로운 대안을 시민들과 공유했습니다.



© Chung Taekyong / Greenpeace

석탄대신 재생가능에너지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지난해에 이어 초미세먼지의 위험을 알리고 현재 계획 중인 9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하는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을 막기 위한 서명을 받는 한편, 당진시와 충청남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숨쉬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초미세먼지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평화적 직접행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지난 6월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통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폐쇄, 대체건설, 연료변경 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현재 운전중인 석탄발전소와 신규 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기쁜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그린피스는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 Taekyong Jung / Greenpeace

그린피스  
글로벌  
캠페인

강과 바다로 버려지는 독성물질, 이제 그만!

인도네시아의 섬유 사업은 200억 달러 규모로, 전세계 패션 브랜드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의류제작 과정에서는 각종 독성물질이 발생합니다. 특히 의류제작에 사용된, 독성물질이 포함되어있는 폐수가 그대로 강에 흘러 들어가 인근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사무소는 지난 수년간 의류를 제작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을 없애기 위한 디톡스 캠페인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법원은 폐수 방출을 법적으로 금지했습니다.



© Hati Kecil Visuals / Greenpeace

멕시코 정부, 바키타 보호를 위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다

바키타는 전 세계에서 60마리도 채 남지 않은 희귀종 돌고래입니다. 그린피스는 바키타를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전 세계 15만 명의 시민들이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결국 멕시코 정부는 올해 9월부터 전 세계에서 유일한 바키타 서식지인 캘리포니아 곶감만에서의 걸궂물(자망) 낚시를 공식적으로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멕시코 정부의 새로운 법안은 멸종 위기에 몰린 바키타 개체수가 회복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ivia Hyams / Greenpeace

북극 보호를 약속한 글로벌 기업들

올해에도 북극에서 기쁜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맥도날드와 테스코를 비롯한 대형 글로벌 해산물 기업들이 북극 바다에서 벌어지는 파괴를 막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노르웨이 어선 소유주 협회인 ‘피스크보트’, 원양업 기업인 ‘오션 트롤러스’ 및 유럽 최대 냉동 해산물 가공업체인 ‘에스페르센’을 소유한 러시아 카랏 그룹 역시 북극해에 속해있는 바렌츠해 북부에서 대구 어업 확대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산업계에서 스스로 북극 보호를 위해 나선 것은 최초로, 이는 북극 생태계를 위한 놀라운 승리입니다.



© Nick Cobbing / Greenpeace



© Fabio Nascimento / Greenpeace



© Fabio Nascimento / Greenpeace



## 아마존의 심장, 그 곳에 사는 사람들

남미 9개국에 걸쳐 650만km<sup>2</sup>에 이르는 지역을 덮고 있는 세계 최대 열대 우림인 아마존은 지구의 허파와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문두루쿠족 원주민들은 이 아마존의 심장을 흐르고 있는 타파조스강을 터전 삼아 수 세기에 걸쳐 살아왔습니다.



© Valdemir Cunha / Greenpeace



© Rogério Assis / Greenpeace

### 아마존의 자연과 어우러지는 삶

타파조스강에는 약 12,000명의 문두루쿠족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공격적이고 호전적인 전사들이었지만, 현재는 주변의 자연에서 필요한 것을 얻는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문화를 지켜가며 살고 있습니다.

타파조스강은 이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강에서는 주요 식량인 생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작은 나무배를 타고 강으로 나가 그물을 던집니다. 그물을 한 번 끌어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이 먹기에 충분한 생선이 잡히는 타파조스강은 훌륭한 낚시터입니다.

마을의 여자들은 함께 모여 마을을 청소한 뒤 사냥과 낚시를 나갔다가 돌아오는 남자들을 위해 점심식사를 준비합니다. 여자들은 항상 함께 모여 일하는데, 설거지와 빨래를 하러 강에 갈 때에도 모두 함께 가서 서로를 돕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마을 학교에서 포르투갈어를 비롯해 문두루쿠족의 역사와 문화를 배웁니다.

문두루쿠족 마을 사람들은 숲에 사는 야생 동물들과 어울려 살아갑니다. 마치 마을 공동의 애완동물처럼, 부모를 잃은 아기 돼지나 원숭이, 새들은 자유롭게 마을을 돌아다닙니다. 동물들은 주인들과 금세 친해지고 가족처럼 가까워집니다. 다 자란 동물들은 자연스레 다시 숲으로 돌아가지만, 종종 가족들을 만나고 싶어 마을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 타파조스강은 우리의 삶입니다

문두루쿠족 여성들은 여가시간에 가족들을 위한 전사의 목걸이를 만들기도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취미이자 즐거움은 놀랍게도 축구입니다. 오전 집안 일이 모두 끝나면, 마을의 여성들은 축구공을 들고 공터에 모입니다. 마을 여성들에게 축구는 즐거운 오락이자 훌륭한 전신 운동입니다.

이처럼 축구를 즐기고, 자신은 무슨 일든 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문두루쿠족의 젊은 엄마에게도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타파조스강에 초대형 댐이 실제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브라질 정부가 건설하고자 하는 상루이즈도타파조스(SLT)댐이 건설되면, 이들이 오랫동안 살아온 고향은 수몰되어 뉴욕시 크기의 저수지 속에 잠겨버리게 됩니다.

“댐이 지어지는 걸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요.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는 일이에요. 이 땅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생존이 달린 문제거든요. 낚시를 해서 식량을 구하는 우리에게 타파조스강은 삶 그 자체예요. 우리는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도시의 생활 방식도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이 숲에서 나왔고 이 숲에 있으니까요. 제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우리 마을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마을 사람 모두는 댐이 건설되는 걸 막으려고 노력 중이에요.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요.”



© Markus Mauthe / Greenpeace



© Rogério Assis / Greenpeace



© Valdemir Cunha / Greenpeace

### 초대형 댐 건설로 위협받는 아마존

문두루쿠족은 자신들이 살아온 땅의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오랜 싸움을 벌여왔습니다.

만일 상루이즈토타파조스(SLT) 댐이 건설되면 문두루쿠족의 전통 마을인 사와레 무이부 마을을 비롯한 4개 마을이 수몰되어 200여 명의 문두루쿠족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아마존 우림은 어마어마한 양의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를 줄여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파괴될 수록,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를 입는 것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질 환경 보호국에 제출된 SLT댐에 관한 환경영향평가(EIA)에 따르면, 댐이 건설될 지역에서 식물 1,378종, 조류 533종, 어류 352종, 양서류 109종, 파충류 75종을 포함한 다양한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중 상당수가 멸종위기종이며, 분홍돌고래와 아마존매너티, 멸종 위기의 황금앵무, 아나콘다와 재규어 등이 중요 종에 속합니다. 초대형 댐이 건설된다면 이 대자연의 보고와도 같은 지역이 물 속에 잠겨 파괴될 것이며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것입니다.

마을 최초의 여성 족장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은 우리 모두의 핏줄입니다. 이 강은 살아남기를 원하지만, 무차별적인 파괴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신들에게 어떤 죽음이 닥쳐오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 그린피스와 함께 문두루쿠족 편에 서주세요

문두루쿠족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 주변을 돌면서 이 땅이 문두루쿠족의 영토임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세웠습니다. 이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 땅이 문두루쿠족의 땅으로 법적 인정을 받게 되면, 댐 건설은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원주민권리부(FUNAI)는 이 지역이 전통적인 문두루쿠족의 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지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변동이 심한 현재 브라질 정치 체제를 감안하면, 이 정식 인정 과정은 언제까지 미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린피스는 문두루쿠족을 도와 타파조스강의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고, 그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인 3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직접 타파조스강가의 사와레 무이부 마을에 찾아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브라질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마을의 문화와 역사, 생활 지역 등을 담은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 헝가리, 스위스, 브라질, 오스트리아, 일본, 호



© Otávio Almeida / Greenpeace

주, 미국, 벨기에, 독일 등 전 세계 15개국에서 타파조스강과 문두루쿠족의 마을을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담은 평화적 직접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댐 건설을 진행하는 기업인 지멘스 사옥 앞에서 댐 건설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문두루쿠족이 처한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 120만 명의 시민들이 타파조스강을 지키기 위한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 승리의 기쁨, 그리고 미래

드디어 8월 5일, 브라질 환경청은 공식적으로 SLT댐 건설 취소를 발표했습니다. 놀랍고도 기쁜 소식이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타파조스 지역을 비롯해 아마존 우림 전역에 총 42개 수자력 댐 건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아직 문두루쿠족의 영토가 공식

적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SLT댐을 비롯한 초대형 댐들은 브라질 국민들에게 공급할 전력을 만들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태양열, 풍력 등 재생가능에너지로도 얼마든지 미래 브라질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피스는 문두루쿠족 마을 두 곳에 태양전지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태양전지판은 문두루쿠족 사람들이 보다 자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브라질이 환경을 파괴하는 대형 댐에 의존하지 않고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계속해서 문두루쿠족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리려 합니다. 아마존의 심장이 파괴되는 것은 단순히 원주민들과 일부 동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구를 위협에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Taekyong Jung / Greenpeace



© Paul Langrock / Greenpeace



##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미래

온실가스의 주범이자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수은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전 국민이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지만,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입니다.

### 석탄화력발전소에 그늘진 사람들

당진 석탄발전소 6,040MW급 10기가 운전 중인 당진시 석문면 교리는 예전엔 바다가 넓게 펼쳐지고, 물고기가 많이 잡히던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갑작스레 바다를 메워버린 자리에 석탄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우뚝 솟은 10기의 커다란 석탄발전소는 하루에만 석탄 약 4만 톤을 연소하며, 매일 석탄분진과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을 배출합니다.

석탄발전소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 사이사이에 석탄분진이 날아와 쌓이게 하면, 흰 색의 빨래를 널어놓기도 힘들 정도로 공기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마을 주민 중에 암 환자가 23명 정도 있어요. 벌써 세상을 떠난 사람도 열두어 명 있고, 시름시름 앓는 사람도 열 서넛 돼요.”

마을 주민의 말처럼, 발전소 전기를 송전하는 송전탑 주변지역으로 암환자가 유독 집중되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각종 피해들이 인근 지역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을 내뿜고 초미세먼지를 악화시켜 전국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석탄발전소 주변 지역의 주민은 이런 문제들로 인해 더욱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생명권을 유지해야 땅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죠.”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마을 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린피스는 1990년 후반, 기후변화대응 캠페인을 시작하면서부터 전 세계의 석탄 사용을 줄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중국에서는 2008년부터 석탄사용 줄이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기오염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콜록 콜록 초미세먼지’ 캠페인과 ‘살인면허를 취소하라’ 캠페인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가 초미세먼지의 주 원인이며 조기사망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국내에 처음으로 알렸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자리하고 있거나 혹은 건설 중인 당진, 충남의 지역 단체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석탄발전소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사정을 더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들과 연대하고 힘을 보태기 위해 서였습니다.

캠페인의 결과, 석탄발전소와 초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

민적인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초미세먼지’와 ‘석탄’을 키워드로 검색된 뉴스 기사는 총 324건이었지만 2015년에는 712건, 2016년은 상반기에만 862건이 검색됐습니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감사원에서 석탄발전의 초미세먼지 기여도와 건강피해에 대한 후속연구들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6일,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발전소 10기를 2025년까지 폐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기오염규제를 강화하고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 증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린피스가 2015년 처음으로 캠페인을 시작했던 당시에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 석탄 반대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도록

하지만 아직 한국은 석탄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11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9기의 또 다른 석탄발전소 건설이 계획 중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29년까지 총 63기의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석탄 줄이기’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석탄 대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도 당진, 충남, 강릉, 삼척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석탄발전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이들의 목소리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석탄 없는 깨끗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글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손민우



© Taekyong Jung / Greenpeace



## 평범한 아저씨가 용기를 낸 이유

2015년 10월, 평범한 시민이었던 그린피스 활동가 다섯 명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을 반대하기 위한 평화적인 시위를 진행했고, 이로 인해 4월 26일 법정에 섰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행동하게 만들었을까요? '평범한 아저씨'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김래영 활동가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 소시민의 중요한 이야기

아무리 따져보아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나이는 어느새 삼십이 넘었고, 몸도 둥글둥글 해졌다. 조금은 소심한 성격의, 출근길에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저씨다. 이런 내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해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

누구나 원전의 위험성을 인정한다. 원전사고의 참혹함을 체르노빌 사고를 통해 배웠으며,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는 일본 여행이나 일본산 식품에도 신경을 곤두세운다. 하지만, 정작 부산과 울산에 걸쳐서 위치한 고리 핵발전소의 위험에 관해서는 알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큰 고리 원전 30km 반경 안에는 3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 원전사고가 날 경우 즉시 대피해야 하고, 최소 수십 년간 사람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이 될 수 있다. 그 안에는 우리들의 가족, 친구가, 아끼는 소중한 이가 산다. 사고의 여파는 30km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고가 나면 부산, 울산, 양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사고 수습과 손해배상도 전부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결국 정부는 6월 23일, 고리 원전에 2개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핵발전소가 한 지역에 밀집될 수록 그 위험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는 우리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이다. 핵발전소를 계속 늘리는 것은 '중독'처럼 보인다. 따라서 나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도박 중독자'이고, 이를 막기 위해 행동하지 않을 수 없었다.

### 변화를 위한 고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위험을 알리고, 함께 변화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했다. 나 혼자 질러대는 작은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말을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주고, 이해하고, 변화를 위해 함께 해줄까? 누군가 예전에 '문제는 그 주변이 아니라 중심에서 마주해야 한다'고 말해준 적이 있다.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도 바로 그것이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바로 문제의 근원에 접근하는 것이었다. 바로 코 앞에서 '평화롭게' 하고 싶은 말을 '직접' 전하는 것. 그래서 고리 핵발전소 앞으로 향했다. 나와 같은 뜻을 가진 평범한 다른 네 명과 함께.

### 평화적 직접행동 이후의 변화

새벽에 시작된 우리의 직접행동은 40분 간 지속된 후 평화롭게 끝났다. 우리들은 자신해서 물러났으며, 메시지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는 동안 아무런 충돌도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행동으로, 우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처법)-공동주거침입'과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위반(집시법)'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2016년 4월부터 수 차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으로 불려갔다.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었다.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과 동료들, 친구들도 나를 많이 걱정했다. 별일 아니라 이야기했지만, 예상했던 것과 실제로 법정에 서있을 때 느끼는 불안감이나 초조함은 확연히 다르게 느껴졌다. 감사하게도 인근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주시고, 첫 공판 때는 법원에까지 찾아오셨다. 인터넷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격려의 메시지도 남겨주셨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약속한 후보들이 부산과 울산에서 많이 당선됐다.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이 우리에게겐 무엇보다 큰 응원이었다.

마침내 7월 22일, 법정은 폭처법에는 '무죄'를, 집시법에는 '벌금 100만 원(미신고 집회 시위)'을 선고했다. 워낙 긴장해서 모든 것이 기억나지는 않는다. 다만 판사님의 말 한 마디만은 머리 속에 남아 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점과 단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고 상당한 근거와 대안을 갖고 표현한 것." 조금 세상이 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7월 29일 검사의 항소로 인해, 끝이 보이던 법적 공방은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번과 같은 불안감은 느끼지 않는다. 벌써 많은 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고 있고, 그로 인해 조금씩 세상이 변화한다는 확신이 든다. 이 확신이 바로, 새롭게 시작될 법적 공방을 버티게 해줄 힘이다. 바로 나,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해 미래가, 세상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거라는 확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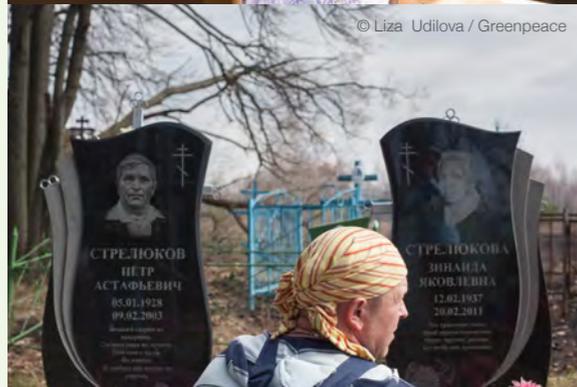
글 활동가 김래영

# 체르노빌, 그 후로 30년

1986년 4월 26일,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5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방사성 오염이 생존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체르노빌을 방문했습니다.



© Denis Sinyakov / Greenpeace



© Liza Udilova / Greenpeace



© Daniel Mueller / Greenpeace



© Liza Udilova / Greenpeace



© Igor Podgorny / Greenpeace

## 1 Vezhysia

우크라이나 리브네 주의 발레리 쿠즈미쉬 씨는 자신의 집에 장애 노인들을 위한 사설 보호소를 만들었습니다. 11명의 장애 노인들 중 일부는 체르노빌 지역에서 왔으며, 쿠즈미쉬 씨는 갑상선암 등 늘어나고 있는 질병의 원인이 방사선이라고 말합니다. “방사선의 영향은 온 사방에 퍼져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합니다.”

## 2 Bryansk Oblast

빅터는 체르노빌 참사 이후 주민들이 모두 대피한 오래된 러시아 마을에 위치한 부모님들의 묘지를 종종 방문합니다. 이 묘지의 방사선 수치는 아직까지도 매우 높지만, 사람들은 방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 3 Novozybkov

노보지브코프의 병원은 환자들로 가득합니다. 지역의 외과 전문의인 빅터 카나예프 씨는 자신의 환자 3명 중 한 명은 높은 방사선 피폭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 4 Belarus

벨라루스에 위치한 나데쉬다 어린이 재활 센터는 체르노빌 참사 이후 매년 4,600여 명의 방사성 오염 지역의 아이들이 찾아옵니다. 한 반 학생 중 40%가 호흡기 장애, 심장 질환, 소화계 질환 등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은 희망을 만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데쉬다는 현재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했으며, 벨라루스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열 난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1	
2	3 4



# 바다를 더럽히는 우리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 Alex Hofford / Greenpeace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 생태계를 위협하는 주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입 된다고 추정됩니다. 그린피스는 지난 7월 6일, 바다를 오염시키는 플라스틱 근절을 위해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인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를 요구하는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 미세 플라스틱과 마이크로비즈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고체 플라스틱을 말합니다. 처음 생산할 때부터 작게 만들어지는 '1차 미세 플라스틱'도 있지만, 스티로폼 부표나 일회용 페트병, 낚시도구, 음식 포장지 등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자연 속에 버려진 뒤 바람과 파도, 자외선 등의 자연작용과 물리력에 의해 마모되고 쪼개져 작아진 '2차 미세 플라스틱'으로 구분됩니다. '마이크로비즈'는 미세 플라스틱에 속하는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치약, 바디워시, 스크럽제, 각질제거제 등 다양한 제품에 박피 효과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 바다와 우리 식탁까지

마이크로비즈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서 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바로 하천과 강, 바다로 흘러갑니다.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인간이 발견하기도, 이를 정화하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비즈를 비롯한 미세 플라스틱이 위험한 이유는 바다 동물들이 먹이로 오인한다는 데 있습니다. 플랑크톤에서부터 물고기들, 포유류에 이르기까지 먹이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바다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을 수 있습니다. 홍합이나 굴, 황새치 등 우리의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 해산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위험성은, 플라스틱 조각이 제조 과정이나 주변 환경에서 유독성 물질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플라스틱들은 해양동물의 건강 및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해산물을 먹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 연구는 바다소금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

유럽인은 해산물 소비를 통해 연간 최대 11,000 조각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할 수 있음

## 미세 플라스틱의 여정



## 우리가 먹는 해산물에 끼치는 영향

- 장폐색
- 물리적 상처
- 섭식습관 변화
- 에너지 할당 감소
- 성장과 번식 악영향

한 현장 조사에 따르면 물고기 한 마리 당 평균적으로 1~1.9개의 플라스틱 조각 발견  
한 마리에서 최대 21조각 발견

홍합, 굴, 황새치, 날개다랑어, 대서양 참다랑어, 바닷가재 등 수많은 해양동물의 체내에서 미세 플라스틱 발견



© Fred Dott / Greenpeace



© Jung-geun Park / Greenpeace

### 마이 리틀 플라스틱 캠페인 일지

7.6

#### 리포트 발간과 함께 캠페인 시작!

그린피스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동물들의 몸 속에 들어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이 먹이사슬의 맨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우려 섞인 연구를 담은 “우리가 먹는 해산물 속 플라스틱”, “바다의 숨통을 조이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7.14

#### 미세 플라스틱 규제를 위한 NGO 공동 성명서 발표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동아시아 바다 공동체 오션, 시민환경연구소,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여성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환경정의재단과 함께 마이크로 비즈 근절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한국정부에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법안 마련을 함께 촉구했습니다.



© Roman Pawlowski / Greenpeace

7.16~17

#### 여의도 IFC몰에서 시민들과 만나다

그린피스는 여의도 IFC몰에서 이틀 동안 “마이크로비즈 그만!” 행사를 열었습니다. 블라인드 테스트, 천연 각질 스크럽제 만들기 등의 체험 행사를 진행했으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 분들에게 마이크로비즈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 Daiyoonlim / Greenpeace



© Daiyoonlim / Greenpeace



7.20



#### 글로벌 화장품 기업 친환경 순위 발표

그린피스는 세계 상위 30대 화장품, 생활용품 기업에 마이크로비즈에 관한 내부정책을 문의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인 규제를 마련하고 있었지만, 기업마다 제각각인데다 강제성이 없어 올바른 해결책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린피스는 기업들의 마이크로비즈 정책을 정리한 순위를 발표하고, 보다 명확한 정책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엘지생활건강과 파엔지, 시세이도와 고세, 에스티로더 등의 기업이 마이크로비즈 관련 정책을 개선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8.4

#### 치약맨을 잡아라!

지난 8월 4일, 서울 곳곳에서 바다를 파괴하는 마이크로비즈가 가득한 약당, 치약맨이 출몰했습니다. 쉽고 재미있게 시민 여러분에게 마이크로비즈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로,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비즈에 대한 설명도 듣고, 치약맨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Jung-geun Park / Greenpeace

8.9

#### 마이크로비즈를 막아주세요! 한강 액션

8월 9일에는 한강에서 마이크로비즈의 문제를 알리는 평화적 직접행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치약, 세안제가 매달린 보트에는 정부 관료와 기업 임원으로 분장한 활동가들이 타고 마이크로비즈 모형을 강으로 던지는 모습과 이를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정부의 즉각 대응과 기업의 허술한 정책으로 우리의 강과 바다가 오염되는 현실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 평화적 직접행동은 시민들이 열심히 한강에서 마이크로비즈 모형을 건져내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 깨끗한 바다를 위한 첫 발걸음, 마이크로비즈 사용 금지

마이크로비즈로 인한 해양 생태계 오염을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정부가 나서서 것입니다. 그린피스 동아시아지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마이크로비즈 규제 법제화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으며, 2만 명이 넘는 한국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마이크로비즈의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 우리 정부는 마이크로비즈는 커녕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린피스는 실질적인 생활용품 속 미세 플라스틱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화를 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서명에 담긴 소중한 목소리는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마이크로비즈가 우리의 바다를 망가트리지 않는 그날까지,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응원해주세요.

글 해양보호 캠페이너 박태현



## 기후변화 해결의 열쇠, IT와 100% 재생가능에너지

지금 전 세계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의 경제도 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다가올 디지털 세상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구축하느냐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린피스와 함께 IT기업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해주세요.

### 기후변화 대응 마라톤, 이제 시작!

올 9월 세계 온실가스 최대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이 파리기후변화 협약을 비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지난해 세계 195개국 정상과 대표들이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한 신기후체제 합의문입니다.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화 이전 수준과 비교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95개국 중 55개 이상의 국가가 국회에서 파리협정을 비준하고 비준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됩니다. 중국과 미국이 비준을 마치면 총 26개국이 비준을 완료하게 되고, 비준 국가의 총 배출량은 39.06%가 됩니다. 파리협정이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으로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 세계 경제는 재생가능에너지로

세계 경제가 저탄소 경제를 넘어 탄소제로 경제로 전환하는 추세에 따라 세계 투자 및 금융시장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화석연료 투자 철회 운동을 이끌고 있는 국제환경보호단체 '350.org'에 따르면 전 세계 기금, 대학, 재단 등 총 3조 4천억 달러의 투자금을 운용하는 548개의 기관들이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 철회에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의 다른 편면 빠르게 확대되는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가 있습니다. 블룸버그뉴에너지파이낸스(BNEF) 연구그룹과 세리즈(CERES) 기관 투자가 연합은 "2040년까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가 필요하고, 이는 전력 분야에서만 12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깨끗한 에너지(재생가능 에너지, 에너지효율성, 저탄소 서비스)에 대한 세계 투자는 2004년 6백 2십억 달러에서 2015년 3천 3백억 달러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는 석탄과 천연가스 투자보다 두 배 이상 발생했고, 신흥시장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는 그 어떤 기술보다 세계 에너지 발전용량에 큰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세계 전력 구조는 깨끗한 에너지 투자 확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 신기후체제의 혁신, 4차 산업혁명

신기후체제와 함께 미래 시대를 열어가갈 주요한 변화는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3차

산업혁명에서 나아가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가 교환되고 상호 소통하는 '만물인터넷 (Internet of Everything),' 즉 초연결 사회의 도래를 뜻합니다. 인간의 삶이 점점 더 인터넷에 의존할수록 데이터센터에 비롯한 디지털 기반시설은 더욱 커지고, 이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 자체가 소비하는 전력량은 세계 경제 대국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계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추세로 확대된다면, 2030년 데이터센터 전력사용량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이 예상하는 세계 전력 수요량인 약 30,830TWh의 20%에 다다를 예정입니다. 이 엄청난 양의 전력이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로 생산된다면 과연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파리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늦어도 2030년까지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전력을 100%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해야만 합니다.

### 그린피스와 함께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디지털 세상을 어떤 에너지원으로 구축하느냐에 지구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이미 IT분야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전력 소비를 감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을 아무리 높인다하더라도 화석 연료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한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쿨아이티(COOL IT)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IT기업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요구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강력한 요구로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선언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린피스는 오는 9월 27일 IT 기업의 재생가능 에너지 사용 현주소를 새롭게 평가한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Clicking Clean)>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린피스와 시민 여러분에게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던 글로벌 IT기업들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을까요? 특히 아시아 기업으로 유일하게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네이버는 어떤 변화 있었을까요? 이번 보고서에는 국내 기업의 에너지 성적표에서 더 나아가,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 동아시아 인터넷 대기업들의 성적과 함께 동아시아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정책 비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IT기업들의 변화를 함께 요구해주세요!

글 IT 캠페이너 이인성



© JeonjiyunKim / Greenpeace

## 거리에서 만난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

거리모금가는 시민 여러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린피스의 캠페인을 알리고 더 많은 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그린피스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자님들이 거리모금가의 열정과 노력에 공감하여 후원을 결정해줍니다. 박장미 거리모금가와 이슬 후원자님의 특별한 만남과 인연을 소개합니다.

### 불편 한 자루와 핫초코에 담긴 사연

대학시절부터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아 그린피스의 거리모금가로 일하고 있는 박장미 씨가 이슬 후원자님과 처음 만난 것은 작년 겨울. 거리모금가로 활동을 시작한 지 한 달차 신입이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유독 추운 날씨에 시민 분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일은 쉽지않은 일였습니다. 장미 씨의 설명을 귀 기울여 들어 주고 흔쾌히 후원을 결정한 이슬 후원자님을 만난 반가움도 잠시, 차가운 날씨에 불편한 잉크가 굳어버려 후원 서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한겨울에 길가에서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불펜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가버리시지는 않을까 너무 당황스럽고 죄송했어요. 결국 어떻게 간신히 후원신청서를 받았는데, 이슬 후원자님께서 돌아오시더니 따뜻한 핫초코와 새 불펜을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감사하고 감동적이었어요.”

멕시코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생활하다 현재는 한국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슬 후원자님은 그린피스와 남다른 인연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그린피스 멕시코 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던 것입니다. 거리에서 캠페인 설명을 하는 일을 도왔는데, 동양인이 에스파냐어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많은 관심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멕시코에서 한글학교에 다녔는데,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 문을 닫게 되었어요. 그때 아버지께서 한글학교가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기부를 하셨고 결국 다시 문을 열게 됐죠. 그때부터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린피스 활동에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저도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캠페인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거리모금가 분들이 추운 날 열정적으로 설명하시는 걸 보니 응원하고 싶었어요. 게다가 시작한 지 한 달 차라고 하니 제가 더 신이 나서 후원하겠다고 했죠.”

###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슬 후원자님은 멕시코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남을 돕는 기쁨’에 대해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멕시코에서는 모금함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받기도 하는데, 어떤 분은 지금은 돈이 없어 후원을 못한다고 미안해 하면서 더운 날 옆에서 부채질을 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나중에 직장을 구했다고 다시 오셔서 후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행복해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주고 싶어하시는 진심이 너무 감사했던 기억이 나요.”

장미 씨는 거리모금가로 활동하면서 힘든 상황도 많았지만, 이 일을



© Greenpeace

하는 것 만으로도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거리모금가로 일하다 보면 수 많은 거절과 무시를 당하게 돼요. 환경보호에 대한 가치를 전하고 싶어서 나왔는데, 판매원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이슬 후원자님처럼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신나고 큰 힘이 돼요.”

이슬 후원자님은 앞으로 환경보호, 특히 깨끗한 물과 관련된 일을 직접 해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환경뿐 아니라 빈곤국가 아이들의 기본적인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양한 제품들의 콘셉트 디자인과 마케팅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제품이라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환경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관심도가 낮은 것 같아서 아쉬워요. 좀 더 많은 이들이 환경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린피스는 후원자님들의 후원과 관심, 응원과 행동으로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이슬 후원자님을 비롯한 모든 후원자님들이 있기에 변화를 만들고 환경문제 해결을 현실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장미 씨와 이슬 후원자님의 특별하고 소중한 인연이 계속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모든 후원자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